

르네상스時代와 바로크時代의 人物畫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形態와 美人像의 比較 研究

權 九 靜

서울保健 大學 뷰티아트科 專任講師

The Study For Comparing Makeup and Ideal Beauty on the Renaissance and the Baroque Portraits

Kwon, Ku-Jung

Prof., Dept. of Beauty Art, Seoul Health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to compare the makeup style and the ideal beauty of the Renaissance and the Baroque by examining the portrait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as for the Renaissance makeup, they preferred a broad forehead and thin eyebrows. The color for lips and cheeks makeup was orange and light orange in fashion.

Secondly, as for the Baroque makeup, they preferred a broad face with double chin, dark and thick eyebrows and small lips. The color for lips and cheeks was reddish and clear.

Finally, as for comparison the these ages, the Renaissance ideal beauty was a little plentiful women with a broad forehead, thin eyebrow.

But the Baroque ideal beauty was totally plentiful women with thick eyebrows, clear reddish lips and cheeks. The color of lips and cheeks was more reddish and clear in Baroque. The Baroque women had the smaller lips than the Renaissance women and they are more plentiful and modern with a flourish than the others.

Key Words : Renaissance(르네상스), Baroque(바로크), makeup(메이크업),
ideal beauty(이상적인 미)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류에 있어서 미를 추구하는 행위가 시작된 것은 인류의 시작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미를 추구하는 행위는 각 시대마다 고유한 조형양식과 미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 영향을 주고 변화한다.

인간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미(美)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며 이러한 미에 대한 관점은 절대적인 기준이나 이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의 평가이며 사회적인 규정의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¹⁾ 사회문화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 문화와 사상 등은 모두 이러한 미의 기준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미의 기준에 따라 여성들의 메이크업 형태도 다양화 되고 발전되어 왔다.

고대부터 시작된 메이크업은 중세시대에는 신 중심의 세계관에 의해서 모든 관심이 현세보다는 내세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메이크업이나 복식역시 인간의 신체를 변화시키는 신에 모독하는 행위로 보았으며, 매우 현세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경시되었다. 그러나 르네상스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중심의 세계관으로 돌아감에 따라 인간의 신체에 대한 관심과 현세에 대한 관심으로 메이크업의 형태, 색채등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미의식이 정립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크시대가 되어서는 중세의 가치관과 사상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인간중심의 세계관이 팽배해지고 다양한 치장을 즐기며 미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치달게 된다. 또한 이 두 시대는 과학과 인접학문의 발달로 치장의 범위를 한층 넓혀주어 다양한 방법으로 치장하는 방법을 창조해냈고,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유럽전역의 유행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현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메이크업이나 유행의 형태는 사진이 발달한 현대와는 달리 유일한 보존수단인 회화로 남겨졌다. 현대의 사진이 현대 사회의 모습과 유

행을 보여주듯이 이 시대에는 회화가 그 역할을 했다. 이 시대의 인물화에는 나타나는 인물들은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고자하여 대체로 현실적으로 표현되지만 대부분의 화가들이 실물을 보고 그릴 경우 실제와 닮게 그리면서도 그 시대의 미인상을 반영하여 인물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미화시켰다.²⁾ 즉 그 시대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물을 조금은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그 시대의 인물화를 통해 그 시대의 치장 형태뿐 아니라 미의 기준까지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시대의 인물화에서 나타나는 메이크업의 양상과 인물의 모습을 연구한다면 변화되는 메이크업양상과 이상적인 미인상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시대의 인물화에서 표현되는 메이크업의 미적 표현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시대의 메이크업의 표현특성과 시대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파악한다. 또한 두 시대의 비교를 통하여 변화하는 메이크업 형태와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알아봄으로서 현대에 보여지는 메이크업의 표현양상과 미의 기준변화의 틀을 보여주고 가능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분류는 일반적으로 14세기 중, 후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복식과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인물화에 표현된 미의 양식을 보고자함으로써, 르네상스가 인쇄활자가 발명되고 예술의 중심이 이탈리아로 옮겨졌던 15세기 후반(1460년경)부터 정점을 이루었던 16세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바로크 시대에 대한 분류는 르네상스시대가 끝나는 1600년경부터 루이14세가 사망하고 프랑스의 로코코가 시작되는 1715년 까지 17세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방법과 두 시대의 회화를 통한 내용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시대의 미의 기준과 관련이 깊은 시대적 상황과 복식문화, 이를 표현하는 양식

인 회화적 특성 등을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였고, 내용분석은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시대와 바로크시대의 인물화 30점씩을 선정하였는데, 이를 대상으로 여성들의 메이크업과 인물을 분석하고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연구하였다.

II.이론적 배경

1. 시대적 배경

1) 르네상스 시대의 시대적 배경

르네상스(Renaissance)란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재생, 부활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rinascenza, rinascimento에서도 어원을 찾을 수 있으며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고대의 그리스와 로마의 인간중심 사상과 문화를 이상으로 하여 이들을 부활시키고자하는 그리스, 로마의 고전문예 부흥을 의미한다.

로마제국이 멸망한 후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 약 1000년간 유지되었던 중세시대는 그리스도교 중심의 신 중심 사회로 사람들의 관심사는 내세에 있었으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경시되었다. 르네상스는 이러한 신 중심 사상에 벗어나고자하는 넓은 의미에서는 중세의 붕괴였다.

르네상스의 사상적 측면은 휴머니즘으로 중세의 엄격한 종교적 규제, 인간의 육체를 가치 폄하하는 사상에 반하여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인간존엄에 가치를 두었던 그리스, 로마문화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15세기에 접어들면서 르네상스의 기운이 가장 먼저 일기 시작한 곳은 도시상업의 부활이 가장 빨랐던 이탈리아였다. 이탈리아는 중세에 있어서 다른 유럽지방과 달리 비교적 봉건제도가 약했으며, 또한 그리스, 로마가 번영을 누린 지역으로서 그 전통과 자부심도 깊어 순수한 중세문화의 발달이 적은 곳이었다.³⁾ 또한 지리적으로 동서양을

잇는 중계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일찍부터 상공업의 중심지였던 피렌체가 중심이 되어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졌다.

이렇게 시작된 르네상스는 15세기말에서 16세기에 절정에 달하였으며 16세기에는 알프스 이북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났으나 해상무역으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북유럽에 전파되어 각각 특색 있는 문화를 형성하여 근대 유럽문화 태동의 기반이 되었다.⁴⁾

이때는 현세중심의 사고로 무역, 상업이 성행하여 봉건시대가 타파되고 부유한 상인이 등장하며 인쇄술의 발달로 서적이 대량생산되면서 대중들이 무지에서 벗어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새로운 학문과 르네상스의 사상들이 유럽각지로 퍼져나가는데 도움을 주었다.⁵⁾ 이러한 상업의 발달로 인하여 부를 축적하고 인간중심의 사고로 인하여 과학과 학문이 발달함으로서 의복 및 미술의 재료, 기법의 발달도 함께 가져왔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의 미술과 문학이 재음미되고 인체와 생태계에 관한 과학적 탐구가 이루어졌으며 자연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해부학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움으로 화가들은 초상화, 풍경화, 신화나 종교내용을 주제로 한 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이러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예술가의 지위도 상승하여 르네상스의 전성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미켈란젤로(Michelangelo), 라파엘로(Raffaello)와 같은 거장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신대륙의 발견이나 과학적인 탐구 등으로 신이나 절대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게 되고 인간에 대한탐구가 활발해졌다.⁶⁾ 이러한 연유로 인물화의 발달이 도드라지며 회화에 있어서 반 아이크(Jan Van Eyck)의 유화의 발명과 원근법, 명암대조법등의 혁신적인 기법이 고안되어 중세의 암흑시대를 뒤로하고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고대 시대에는 황제나 귀족이 초상화의 주인공이었다면 르네상스시대에는 교황, 황제, 귀족은

물론이고 상인, 궁정인, 예술가, 여인들이 초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⁷⁾

여인의 초상화는 명성이 높은 여인들의 주문으로 제작되기도 하고 화가들의 사적인 호감에 의해 제작되기도 하였는데 대부분의 화가들이 실물을 보고 그릴 경우 실제와 닮게 그리면서도 그 시대의 미인상을 반영하여 인물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미화시켰다.⁸⁾

초상화는 현대 사진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물의 성격과 신분을 작품 속에서 드러내며, 화가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인물 내부의 생생한 표정변화를 드러내기도 한다. 지극히 인간적인 것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인물화는 인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반영이자 르네상스의 가장 특징적인 미술현상이다. 인물화는 그것을 그린 화가보다 그려진 대상이 보는 이의 흥미를 불러 일으키며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보다 감각적이며 색채주의적인 묘사의 특성을 이루어낸다.⁹⁾ 이러한 인물화 속의 주인공은 그 이전 시대보다 더욱 더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으며 시대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볼 수 있게 한다.

2) 바로크시대의 시대적 배경

바로크라는 용어는 포르투갈어의 barroco에서 유래하였다. ‘이그러진 기묘한 진주(眞珠)’라는 뜻인데, 이 말은 본래 16세기 유럽을 지배한 고전주의 르네상스 뒤에 나타난 양식에 대하여 모멸적인 뜻으로 사용 되었다. 17세기 유럽사회는 신앙면, 정치면, 사회면에서 동요가 심했던 시대로 사회의 혼란 속에서도 귀족들은 권위를 강조하고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하며 부정형(不定形)한 것, 진귀한 것을 좋아하는 취향을 가졌기에 이를 예술양식으로는 바로크(Baroque)라고 불렀다.

바로크 예술의 특징은 과장되고 복잡하며 감각적인 성향으로 곡선을 예술적 표현으로 이용해나갔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바로크 스타일은 르네상스 시대의 정적이고 조화적인 균형의 미를 깨

고 움직임이 있는 격정적인 미의 이상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바로크 양식은 자유분방한 울동감이 곡선표현으로 나타났다.

17세기 유럽의 헤게모니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부터 프랑스로 옮겨갔다. 전반에는 네덜란드가 동양과의 해외무역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네덜란드의 수수하고 시민적인 성향이 풍부한 간소미의 매력이 유럽에 새로운 유행을 일으켰으나, 후반에는 루이14세의 왕을 중심으로 하는 절대왕정제도가 확립되면서 모든 문화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전 유럽에 프랑스의 문화의 영향을 미치게 하였으며 특히 왕비와 궁정의 여자들이 패션리더를 담당하였다. 또한 넓은 국토와 길드제도에서 얻어진 고급건축물과 레이스, 발달된 상업도시는 유럽의 중심을 프랑스가 이어가게 하였다.

16세기 고전적 르네상스의 조화·균형·완결성 등에 대하여 경탄과 현혹(眩惑)을 지향하여 양감(量感)·광채(光彩)·동감(動感)에 호소하였다. 또한 회화에서는 대각선적인 구도(構圖), 원근법(遠近法), 단축법(短縮法), 눈속임 효과의 활용 등이 전체적인 특색이며, 18세기에 들어와서도 로코코 미술 속에서 명맥을 유지하였다. 르네상스와 비교하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보다 빛나는 색채, 음영과 질감의 풍부한 대비 효과, 자유롭고 표현적인 붓질 등으로 비고전적, 동적, 남성적, 불규칙적인 성격과 심한 과장성의 표현이다.

따라서 바로크예술은 전체에 종속되는 부분들의 조화를 통한 균형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균형이란 전성기 르네상스의 이상이었던 각각으로도 완벽한 부분들이 이루는 전체적인 균형과는 다른 것이지만 매너리즘의 종종 고의적으로 조화를 깨뜨리는 점이나 로코코의 신경질적인 단편성 보다는 오히려 르네상스에서 말하는 균형과 공통되는 점이 더 많다. 바로크가 추구하는 화합은 형식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신체적인 참여를 하게하고 그림으로써 정신적인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크 작품의 특징이다.

2. 메이크업의 특징

1) 르네상스시대의 메이크업의 특징

르네상스시대가 되면서 현실세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강한 자의식과 개성을 가지고 내세보다는 현세의 삶을 찬양하여 인간자체를 고유의 가치와 원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몸을 스스로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했고, 육체의 미를 찬양하게 되었다.

자본주의가 출현하면서 개인주의와 향락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귀족과 부유계층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과장되고 화려한 의복과 화장을 즐겼다. 비잔틴이 몰락하고 고대 수사본들이 이탈리아어로 번역되면서 로마제국의 화장품제조법과 미용법이 유럽에 전해졌다.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처방전과 조제법은 각지로 전파되었고 화장술에 관하여 의학적이고 위생학적인 과학적 담론과 수술을 이용한 아름다움을 약속하는 속임수로 이루어진 미술적 담론의 두부류가 공존하였다. 과학적 담론의 일부로는 이탈리아 교수였던 피에트로 데 빠드웨는 화장법과 목욕법을 다룬 여성의 화장이란 책이 나오고, 해부학자이자 의학자에 의해서 화장품과 미용예술에 대한 책이 나오므로서 화장품과 화장전반에 관하여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 시대는 해부학의 발달과 피타고라스(Phthagoras), 플라톤(Platon)에 의한 조화, 정의의 미적기준을 이상으로 함에 따라 인간 신체의 이상적인 비례관계를 정하였다. 이를 테면 콧구멍을 잇는 수평선과 턱 끝사이의 수직거리는 얼굴길이의 3분의 1이고, 콧구멍선과 눈썹을 잇는 선 사이의 거리는 눈썹선과 이마끝선 사이의 거리와 같다.¹⁰⁾ 이러한 조화를 강조한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비례를 정하여 그에 부합하는 것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본 이시대의 미적이상향은 현대에도 영향을 주어 얼굴의 각 부분의 비례와 관계를 정하여 미의 기준으로 삼는 얼굴의 균형도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논하는 문서들에서 보면 이시대 여성의 이상향은 피부, 치아, 손의 세

가지 흰 것과 입술, 볼, 손톱의 세가지 붉은것, 눈, 눈썹, 속눈썹의 세가지 검은것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이상적인 신체에 관한 서른세 가지 규범에 부합해야한다.

이시대의 미인상은 베네딕트회 수도사인 아놀로 피렌추올라(Angolo Firenzuolo)가 여성의 아름다움에 관해 쓴 '여인의 미에 대하여'(1548)에 잘 나타나있다.

그는 모든 신체부분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머리는 금발로 빛나야하고, 이마는 넓고 높은 것이 좋으며, 눈썹은 흑단으로, 눈동자는 너무 검지 않은 황갈색 눈동자에, 턱은 뾰족하지 않으며 통통하고, 입은 큰 것보다 작은 것이 좋고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두꺼운 것을 미의 조건으로 보았다.¹¹⁾

이탈리아의 문호들에 의해서도 여성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표현된다.

보카치오(Boccaccio)의 아주 작은 상아처럼 하얀 이, 천상의 것인 듯 한 가슴, 아리오스토(Ariosto)의 매우 섬세한 눈썹, 지나치게 검지 않은 눈동자, 마키아벨리(Machiavelli)의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넓고 투명한 정맥이 보이는 긴 손 등으로 각 부분의 아름다움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이러한 화장법과 화장품의 발달로 미에 대한 정확한 규정으로 이 시대는 화장을 안 한 상태로 외출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화장은 사교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장품은 수은, 황화물, 붕사 가루, 백연(白鉛) 등으로 만들어져 독성이 있었다. 많은 여성들은 백연을 미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화장품의 과도한 사용은 18세기까지 유행하였다.¹²⁾ 이는 결국 원인모를 병과 죽음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메이크업으로 영국의 엘리자베스1세 여왕을 들 수 있다. 화장하기를 즐겼던 그녀에 의해 새로운 화장법이 성행하였다. 그녀의 창백한 피부와 머리색을 모방하여 연백(鉛白)으로 만든 하얀분과 설화석고를 사용하였다. 그 위에 흰 납을 붉은색으로 물들인 것이나 붉은

황도를 볼이나 입술에 칠하였다. 머리색은 붉은 색으로 물들이고 가슴을 노출하고 회반죽으로 밝게하고 그들의 눈썹을 족집게로 뽑고 면도하여서 없게 만들었다.¹³⁾ <그림 15>

그 외에도 이시대의 메이크업은 피부표현에 있어서는 알라바스터(Alabaster) 분말과 점토, 마스크팩(Mask Pack), 백납분등을 사용하여 창백하고 흰 피부를 유지하였으며 보이는 신체부분은 모두 희게 분을 바르고 이마에는 정맥을 그려서 투명하고 희게 보이게 하였고, 광택 있는 도료를 덧발라 윤기 있게 보이게 하기도 하였다. 눈은 화장막으로 선을 그렸고 벨라도나로 눈동자를 반짝이게 했다. 눈썹은 족집게로 정리하여 얇은 선을 만들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눈썹을 강조하지 않았으나 상류층의 여성과 매춘부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눈썹의 형태를 관자놀이 돌기부분부터 똑바로 하강하게 그리거나 둥글게 아치형으로 그리며 화장막, 숯검, 안티몬(Antimony)을 이용하여 색상 또한 흑단(黑檀)색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림 8>

볼 화장은 주로 사선으로 넓게 표현하고, 입술은 주로 수평형이 많이 보이고 작고 붉게 그려서 강조한 경우가 많다.

르네상스시대의 색채는 빨강, 파랑, 주황, 진보라, 갈색, 검정 같은 짙은 색을 선호하였다. 눈썹은 밝은 갈색부터 흑단색으로 표현하였으며, 볼 화장은 밝은 갈색과 주황의 표현이 많다. 입술은 주황계열의 색상으로 피부색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였다.

2) 바로크시대의 메이크업의 특징

바로크는 르네상스의 균형과 조화와는 달리 열정적, 자유로우며, 울동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과장된 곡선, 호화로운 장식, 화려한 색채를 강조한 '사치의 시대'이다.

바로크시대엔 중세에 아름다움의 원형이던 가냘픈 아가씨는 사라지고 포동포동하고 성숙한 여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후 미인의 모습은 따뜻한 혈색에 크고 검은 눈을 지닌 풍만한 여인으로 나타났다. 바로크는 생명력이 충만한 살아있

는 여인을 미의 기준으로 선택하여 짙은눈썹, 터질듯한 가슴, 통통한 손가락, 풍만한 허리와 둔부 그리고 윤기 있는 금발과 화려한 의상과 장식을 한 여성을 이상향으로 보았다.

바로크적 미의 주창자이자 이탈리아식 모범을 프랑스 궁정에 들여온 카트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edici)는 금발의 광택 없는 흰 얼굴빛, 투명한 피부, 하얀 손과 섬세한 귀족적인 자태를 미인의 조건으로 꼽았다. 분을 바른 얼굴과 천사의 고결함을 상징하는 발그스레한 볼을 높이 평가했다. 피부가 햇볕에 그을리는 것을 싫어했던 부인들은 외출을 할 때는 단추를 이빨사이 에 몰아서 얼굴 위에 고정하는 가면을 써서 흰 피부를 유지하고자 했다.

특히 이 시대는 패취(Patch)가 애교점이 유행하여 주근깨와 여드름을 감추기 위해 사용되고 이는 후에 로코코시대에 극에 달한다. 애교점은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랐는데 웃음으로 생기는 눈주름에는 쾌활, 입술 위는 장난기, 이마 위는 위엄 있음, 볼 위는 친절, 입술아래는 신중을 의미했다.¹⁴⁾

귀족들이 사용한 연지의 붉은 빛은 진홍색에서 자홍색, 장미색, 주홍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입술주위는 밝은 색조를 칠했고 광대뼈와 눈 가까이에는 원형으로 둥글게 발랐다. 중산계급은 얇게 발랐으나 궁정의 여인들은 짙게 발랐다. 여인들은 연지를 대단히 중시하여 주머니안의 작은 상자에 화장 붓, 거울 등을 넣고 다니며 어디서건 붉은 볼을 그렸다. 뺨의 연지는 볼의 전면에 넓게 칠해졌고, 아이새도는 어두웠다.

이 시대는 대부분 화장한 얼굴을 당연시 했으며 많은 여자들이 흰 파우더를 썼고 상류층은 살색, 핑크등의 창백한 분을 썼다. 화장은 주름을 가리기위해 두껍게 발라지기도 했으며, 매트함과 대조되게 번쩍임이 쓰이기도 하였으며, 볼그래한 뺨과 입술이 주를 이루었다. 진한 색조의 붉은 연지를 둥글게 칠한 뺨, 장미꽃 모양과 색의 입술, 살찌고 둥근 풍만한 여인이 미인의 조건으로 꼽히고 있었다.

III. 르네상스시대와 바로크시대 인물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표현방법 분석

1. 메이크업의 표현요소 및 이미지에 따른 표현특성

1) 메이크업 표현 요소

일반적으로 메이크업의 표현요소는 색상, 선, 면, 질감, 조명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회화를 통하여 메이크업 및 시대의 미인상을 추정하고 비교해보고자 하는바, 현시대의 메이크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질감은 회화라는 제한적인 특성상 표현되기 어려우며 조명역시 회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두 가지 표현요소는 제외하고 색상과 선과 면이 합쳐진 형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1) 형태

메이크업에서 형태는 우선 선과 면으로 크게

나뉘며, 얼굴전체의 형태와 눈썹, 눈, 코, 입 등의 표현을 위한 형태로 나뉜다. 얼굴형은 계란형, 둥근형, 긴 형, 역삼각형, 사각형, 다이아몬드형의 6가지로 크게 나뉜다. 이는 얼굴의 균형도에 따라 세로로는 헤어라인에서 눈썹까지, 눈썹에서 코끝까지, 코끝에서 턱 선까지 삼등분하고 가로로는 눈 길이를 기준으로 오등분하여 비교 하였을 때 가로와 세로의 비율과 전체길이의 비율, 헤어라인의 형태, 턱 선의 형태에 따라 각 얼굴형을 구분한다.

계란형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균형이 잡힌 표준형을 의미하고, 둥근형은 얼굴의 길이에 비하여 폭이 넓은 형태로 귀여우면서 여성적인 느낌을 주는 얼굴형이다.

역삼각형은 이마부분에 비해 턱 부분이 좁아지는 형태로 날카로우며 세련된 느낌을 주는 얼굴형이고, 사각형은 턱 부분이 강조된 얼굴형으로 딱딱하고 강인하며 다소 남성적인 느낌을 준다. 다이아몬드형은 광대뼈가 도드라지는 형으로 활동적인 느낌을 준다. 긴 형은 얼굴의 폭에 비해 길이가 길거나 코가 긴 형태로 성숙한 느낌을 나타낸다.

<표 1>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의 인물화

르네상스									
									
1	2	3	4	5	6	7	8	9	10
1500년대	1504~6	1500년대	1500년대	1536	1474	1505	1500년대	1480	1545년대
알수 없음	알수 없음	알수 없음	알수 없음	티치아노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알수 없음	피에로 디 코시모	브론치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517~21	1463	1538	1485~90	1506	1540~45	1595년경	1595년경	1514	1485
프란체스코 멜치	코스메 투라	티치아노	레오나르도 다빈치	루카스 크라나흐	라파엘로	작자미상	작자미상	라파엘로	도메니코 기를란다이오

<표 1> 계속

르네상스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536	1540	1500년경	1515	1530년경	1570	1502	1503	1515~20	1515~17
한스홀바인	아놀로 브룬치노	조반니 벨리니	조반니 벨리니	대 루카스 크라나흐	프랑수아 클로에	라파엘로	라파엘로	티치아노	티치아노
바로크									
									
1	2	3	4	5	6	7	8	9	10
1615	1650	1600년대	1625~26	1600년대	1600년대	1609~10	1606~7	1630	1609~10
루벤스	렘브란트	렘브란트	루벤스	루벤스	루벤스	루벤스	루벤스	루벤스	페터파울루벤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25	1600년대	1600년대	1600년대	1620	1618~21	1620년대	1621~22	1630	1621~22
루벤스	디에고 벨라스케스	작자미상	요하네스 베르메르	반다이크	반다이크	반다이크	반다이크	반다이크	야콥 요르단스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622~23	1632년경	1635~40	1628~39	1666	1635~40	1610년경	1630~31	1645	1630~33
앤터니 반 다이크	조르주 드 라 투르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	시몬 부에	렘브란트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	도미니키노	루벤스	페르디낭드	프란츠 할스

눈, 볼, 입 등의 표현 형태는 선의 방향성에 따라 나뉘는데 상향선, 수평선, 하향선을 기본으로 하고, 곡선과 직선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상향선은 일반적인 메이크업시 주로 사용하는 선으로 젊고 활동적이며 명랑한 느낌을 주는 선이지만 날카로워 보이는 단점이 있다. 수평선은 무난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주는 선으로 차분하고 점잖은 느낌이지만 고집스럽고 냉정한 느낌을 줄 수 있다. 하향선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지만 우울

하고 해학적인 느낌을 주는 단점이 있다. 곡선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여성적인 느낌을 주고, 직선은 딱딱하고 엄숙하며 남성적인 느낌을 준다.

입은 현대의 메이크업에서의 형태에 의한 구분인 인커브(in-curve), 아웃커브(out-curve), 스트레이트(straight)로 나누는데, 본 연구에서는 원래의 입술보다 매우 작게 그리는 것을 인커브로 나누고, 조금 작게 곡선으로 표현한 것은 수평곡선으로 나누었다.

<표 2> 르네상스시대 인물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특성 분석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합계	
연표	밝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낮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테스	밝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6	
	낮음											0	0			0					0											4	
모공	계란형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5		
	역삼각형	0	0	0		0		0			0				0							0			0						8		
	등근형				0											0									0		0	0			6		
	다이아형																														0		
	사각형																															0	
	긴형	0																														1	
눈썹	상승형																								0							1	
	아치형					0	0	0			0	0	0										0			0						8	
	수평곡선형	0	0	0							0											0							0			6	
	수평직선형		0								0	0											0	0							0	6	
눈썹두께	하향형				0					0						0	0	0									0	0				9	
	두꺼움	0			0					0										중간		0		0		중간			0	중간		9	
치크	얇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수평형								0		0											부이지형에		0	0	0						7	
	사선형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넓은형		0			0																					0	0				4	
입술	둥근형																															0	
	수평곡선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인커브	0																0	0						0	0	0	0	0	0		8	
	스트레이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눈썹	아웃커브							0							0																	2	
	밝은갈색, 금발	0	0			0	0	0	0						0	0						0	0	0								11	
	갈색					0							0																			3	
	진한갈색				0	0					0																			0		4	
	회갈색		0								0									0					0	0	0	0	0			8	
	흑단															0	0	0											0			4	
치크	밝은주황	0		0					0						0			0	0	0		0				0				0		8	
	주황		0							0	0																		0			7	
	밝은갈색					0				0	0				0																	4	
	핑크		0					0												0				0								4	
	붉은색				0	0										0									0			0	0			6	
	부이지형에																															0	
입술	밝은주황			0				0							0				0	0			0	0	0	0	0					8	
	주황	0						0	0	0												0		0	0			0	0			9	
	밝은갈색		0			0					0	0		0								0										6	
체형	핑크		0																													1	
	붉은색				0	0					0						0											0	0			6	
	마른체형	0	0					0	0		0				0								0									7	
기타	풍만한 체형						0				0																0	0	0	0		8	
	중간체형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5	
이미지양식	이미지양식																																
	이미지양식																																
	이미지양식																																
	이미지양식																																
	이미지양식																																
	이미지양식																																
	이미지양식																																
	이미지양식																																
	이미지양식																																
	이미지양식																																
이미지양식																																	

<표 3> 바로크시대 인물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특성 분석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합계
메이크업	밝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7
	낮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테니스	밝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7	
	낮음		0							0					0																	3
모피	계란형		0			0	0			0	0		0					0	0			0								0	10	
	역삼각형			0												0				0			0		0						5	
	등근형	0	0		0					0					0							0					0	0	0		9	
	다이아형																														0	
	사각형								0								0	0													3	
	긴형												0											0			0				3	
	상승형																														0	
	아치형			0		0													0	0											4	
	수평 곡선형						0	0		0					보이지 않음		0	0	0	0			0				0	0	0		10	
	수평 직선형												0				0							0	0		0				0	6
하향형	0	0	0		0				0	0	0	0	0								0				0					9		
눈썹 두께	두꺼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5	
	얇음	0			0	0																		0							4	
치크	수평형	0	0											보이지 않음									0							0	6	
	사선형			0	0			0		0	0				보이지 않음	0		0	0	0				0							10	
	넓은형					0		0			0	0									0	0		0		0	0	0			10	
	둥근형				0												0									0					3	
입술	수평곡선		0	0			0		0		0										0	0	0		0		0		0		11	
	인커브	0			0	0				0	0	0								0	0			0			0		0		10	
	스트레이트			0				0							0	0	0	0						0		0		0			9	
	아웃커브																														0	
색채	단색	밝은갈색, 금발			0	0				0	0				보이지 않음		0	0	0												4	
		갈색	0													보이지 않음				0										0	0	6
		진한갈색		0	0				0	0											0		0	0								6
		회갈색																		0	0		0	0	0				0		7	
	치크	흑단					0						0	0													0	0				6
		밝은주황			0																				0			0				3
		주황	0																							0				0		3
		밝은갈색					0		0		0				0				0		0	0							0			7
입술	핑크		0	0		0				0	0					0	0	0	0			0				0				0	11	
	붉은색						0			0	0									0				0							5	
	밝은주황	0		0							0											0	0								5	
	주황	0	0			0												0	0						0	0					7	
체형	입술	밝은갈색					0	0	0				0			0	0				0	0				0	0		0		11	
		핑크				0																										1
	붉은색						0					0	0						0										0		6	
기타	마른체형													0																	1	
	풍만한 체형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중간		0			0	0				0					0	0	0	0				0	0		0					11	

(2) 색채

현대의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색상은 이 시대에도 역시 중요한 표현요소 중에 하나이다. 메이크업에서는 다수의 색들이 농담에 따라, 대비나 조화에 따라 각기 다른 느낌을 주며 색상의 선택에 의해 아름답게 보일수도 있고 추하게 보일수도 있다.

대체로 난색계열은 밝고 부드러우며 따뜻한 느낌을 주는 반면 한색계열은 차갑고 냉정하며 정적인 느낌을 준다. 또한 색의 대비에 따라 보색대비는 보다 활동적인 느낌을 주고 유사색의 조화는 보다 조화롭고 무난한 느낌을 준다. 이외에도 주조색에 따라 각 색상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에 따라 메이크업의 이미지가 변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다양한 색상의 메이크업에 보여지지는 않으며 주로 몇 가지 색으로 국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색들의 조화나 대비효과를 이용하기보다는 제한된 색상들의 배합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몇 가지 색을 기준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2. 르네상스시대 인물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분석결과 및 고찰

1) 연령, 신분에 따른 분류

연령에 있어서는 나이가 적은 여성의 인물화가 많은 수를 차지했다. 르네상스시대에는 중세시대의 이상형이었던 어리고 가려린 아가씨에 대한 이상이 아직 남아 있어서인지, 나이가 어린 여성들의 초상화가 많이 보이고, 나이가 많은 여성들도 좀더 어려보이도록 표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분에 있어서는 성녀를 포함하여 신분이 높은 계급의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르네상스시대부터 귀족뿐 아니라 부유한 상인, 일반인들의 초상화도 그려지기 시작하였으나 이 시대는 초상화가 상류층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형태에 따른 분류

얼굴형으로는 계란형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역삼각형과 둥근형이 비슷하게 보이고 사각형이나 다이아형의 각진 형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이 시대는 이미 신체각부위의 비례와 균형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미의 기준의 제시하였으므로 얼굴형에 있어서도 그 비례에 따른 계란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눈썹은 하향, 수평, 아치의 형태 순으로 보이거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수평의 형태에서도 직선과 곡선이 동수로 나타났다.

눈썹의 두께는 대부분이 얇은 선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2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하고 얇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눈썹은 대부분 얇게 표현되어 이시대의 미인상인 높고 넓은 이마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치크는 사선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둥근 형태는 보이지 않고 수평형태와 넓은 형태가 조금 보인다. 치크는 사선형태로 표현하여 얼굴을 둥근형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입술은 스트레이트형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며, 수평곡선의 형과 인커브의 입술형이 전체 중에 8개, 아웃커브의 형태도 2개가 나타난다. <그림 11>과 <그림 14>와 같이 스트레이트형도 수평곡선형태도 자신의 입술보다는 약간 작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원래 입술보다 작게 표현하여 큐피트의 활모양으로 표현된 경우가 인커브형태로 8개정도 나타났다.

<표 4> 연령, 신분에 따른 분류

연령	연령이 많음	연령이 적음
분포수(%)	9(30%)	21(70%)
신분	높음	낮음
분포수(%)	26(86.7%)	4(14.3%)

<표 5> 형태에 따른 분류

형 태																							
구분	얼굴					눈썹					눈썹			치크				입술					
분류	계란형	역삼각형	동근형	다리아형	사각형	긴형	아치형	상승형	수평곡선형	수평직선형	하향형	두꺼움	중간	얇음	수평형	사선형	넓은형	동근형	보이지않음	수평곡선	인커브	스트레이트	아웃커브
분포수	15	8	6	0	0	1	8	1	6	6	9	6	3	21	7	18	4	0	1	8	8	12	2
%	50	26.7	20	0	0	3.3	26.7	3.3	20	20	30	20	10	70	23.3	60	13.3	0	3.3	26.7	26.7	40	6.7

<표 6> 색상에 따른 분류

색채																				
구분	눈썹						치크						입술							
분류	밝은갈색, 금발	갈색	진한갈색	회갈색	흑단	보이지않음	밝은주황	주황	밝은갈색	갈색	핑크	붉은색	보이지않음	밝은주황	주황	밝은갈색	갈색	핑크	붉은색	보이지않음
분포수	11	3	4	8	4	0	8	7	4	0	4	6	1	8	9	6	0	1	6	0
%	36.7	10	13.3	26.7	13.3	0	26.7	23.3	13.3	0	13.3	20	3.3	26.7	30	20	0	3.3	20	0

3) 색상에 따른 분류

눈썹색은 밝은 갈색, 금발이 가장 많았다. 밝은 갈색, 금발, 갈색 과 같이 연한색상의 눈썹이 반정도, 진한갈색, 회갈색, 흑단의 어두운색이 반정도 나타난다. 눈썹은 대체로 얇고 흐리게 나타나지만 <그림 16>, <그림 17>에서와 같이 상류층의 이미지를 나타내기위해서, 또는 매춘부의 경우 얇고 진한색상의 눈썹도 보인다. 또한 <그림 1>, <그림 10>에서와 같이 두꺼운 형태를 가지며 색상은 연한경우도 보여 지고, <그림 30>에서와 같이 두꺼운 형태를 가지고 색상도 진한 경우도 드물게 보여 진다.

치크는 밝은 주황, 주황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오렌지계열이 핑크, 붉은색 등의 핑크계열보다 다수가 나타난다.

입술은 주황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밝은 주황, 밝은 갈색 과 같이 오렌지계열이 핑크계열보다 많이 나타났다. 치크 색상과 입술색상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이마가 넓고 높게 표현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마가 넓지 않은 경우는 전체 중 5개이다. 매우 풍만한 체형과 이중턱을 가진 여성은 전체 중 5개로 소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마가 넓은 여성이 많이 나타나고, 아주 풍만하지는 않지만 현재에 비해서는 약간 살이 있는 여성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중세시대의 마른여성인 선호되던 것에 반해 조금씩 풍만한 여성이 선호되어지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후기로 갈수록 풍만한 체형의 여성이 많이 보여 지고, 두꺼운 형태의 눈썹을 한 여성이 많이 나타나고 선호되었다.

따라서 르네상스 시대 인물화를 통해 본 메이크업과 미인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대체로 연령이 낮고 신분이 높은 여성의 인물화가 많았으며 계란형 얼굴에 눈썹은 얇게 표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눈썹의 형태는 하향, 수평, 아치의 형태가 고르게 보이며, 치크는 사선의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입술은 대부분 자신의 입술보다 약간 작게 가늘게 표현하고 가운데만 볼록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다소 보인다. 눈썹의 색깔로는 연한색상과 진한 색상이 대등하게 나타났다. 치크와 입술은 모두 오렌지계열의 색이 많이 나타났으며 치크색과 입술색상과의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 체형은 대체로 아주 마르지 않은 여성이 주를 이루고 풍만한 여성들도 간혹 보인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의식에는 중세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르네상스 초기에는 중세의 여성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후기로 가면서 점점 없어진다. 중세시대에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기사도 정신에 의해 어깨가 좁고 가녀리며 어린 여성들이 미인으로 여겨졌다. 또한 중세말기인 고딕시대에는 고딕양식의 영향으로 높고 넓은 이마에 눈썹은 짙고, 둥근 아치형으로 가늘게 그렸으며 입술산은 뾰족하게 인커브형으로 표현하여 메이크업에서도 첨두형이 나타났다.¹⁵⁾

이는 르네상스 시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르네상스시대의 인물화에는 대체로 연령이 낮은 여성들이 등장한다. 또한 어려보이기 위해서는 비례적으로 이마가 넓고, 작은 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려 보일 수 있는 얼굴비례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이마를 넓게 만들고, 눈썹은 얇게 그려서 더욱 넓은 이마를 강조했으며 입술은 작고 얇게 그린 것이 많았다. 이는 어린여성에 대한 열망

이기도 하지만 고딕시대의 양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뺨은 붉게 만들어 혈색을 주었는데, 대체로 사선형태를 띄고 있어 얼굴형을 넓지 않게 보이도록 얼굴의 윤곽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얼굴형태에 계란형이 많이 보이는 것은 이시대의 미의 기준이 비례에 따라 엄격히 정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얼굴을 균형 잡힌 계란형으로 만들고자 노력했을 것이고, 화가들은 더욱 계란형으로 그렸을 것이다.

색채에 있어서는 입술과 치크가 모두 주황색, 연한 주황색등의 오렌지 계열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붉게 혈색을 주고자 함과 동시에 이시대의 화장재료의 한계 상 오렌지계열의 색들이 가장 많이 쓰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전체적인 체형으로는 마른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중턱을 가진 풍만한 여성도 간혹 보인다. 이는 15세기부터 약간 통통한 여성이 등장한다는 문헌을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르네상스 시대부터 식생활의 변화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상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3. 바로크시대 인물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분석 결과 및 고찰

1) 연령,신분에 따른 분류

연령에 있어서는 나이가 많은 여성의 인물화가 좀더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 시대는 풍만하고 성숙한 여성이 미인상으로 여겨지면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여성들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나이가 많아 보이도록 그리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7> 연령,신분에 따른 분류

연령	연령이 많음	연령이 적음
분포수(%)	17(56.7%)	13(44.3%)
신분	높음	낮음
분포수(%)	27(90%)	3(10%)

신분에 있어서는 신분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신분이 낮은 경우는 매우 적게 나타난다. 신분이 낮은 여성의 초상화가 그려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류층의 초상화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2) 바로크시대 인물화의 형태에 따른 분석

얼굴형으로는 계란형과 둥근형이 가장 많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계란형과 둥근형과 같은 곡선형의 여성적이며 부드러운 얼굴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사각형과 다이아형 같은 남성적이며 딱딱한 직선 형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눈썹은 수평곡선, 수평직선과 같은 수평형태의 눈썹이 가장 많았다. 하향형태도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상승형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치크는 사선과 넓은 형태가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입술은 아웃커브형은 보이지 않으며 나머지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수평곡선인<그림 22>과 스트레이트형인<그림 23> 모두 대부분은 자신의 입술보다 약간은 작게 표현하며, 이중 특히 자신의 입술의 가운데만 도통한 작은 입술의 형태인 인커브는 10개정도 보인다.

4) 바로크시대 인물화의 색채에 따른 분석

눈썹은 진한갈색, 회갈색, 흑단과 같은 어두운 색상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이 시대는 성숙한 여성이 선호됨에 따라 눈썹색은 진한 색으로 표현하여 또렷하고 성숙한 느낌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치크는 주황이나 밝은 갈색과 같은 오렌지 계열의 색상보다는 핑크와 붉은색과 같이 핑크계열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그림 12>에서처럼 붉은색으로 넓게 불화장을 하고 입술을 붉게 칠하여 이 시대에 치크를 매우 강조했음을 볼 수 있다.

<표 8> 바로크시대 인물화의 형태에 따른 분석

		형 태																					
구분		얼굴					눈썹					치크					입술						
분류	계란형	역삼각형	둥근형	다이아형	사각형	긴형	아치형	상승형	수평곡선형	수평직선형	하향형	보이지 않음	두꺼움	얇음	수평형	사선형	넓은형	둥근형	보이지 않음	수평곡선	인커브	스트레이트	아웃커브
%	33.3	16.7	30	0	10	10	13.3	0	33.3	20	30	3.3	83.3	13.3	20	33.3	33.3	10	3.3	36.7	33.3	30	0

<표 9> 바로크시대 인물화의 색채에 따른 분석

		색 채																		
구분		눈썹					치크					입술								
분류	밝은갈색, 금발	갈색	진한갈색	회갈색	흑단	보이지 않음	밝은주황	주황	밝은갈색	갈색	핑크	붉은색	보이지 않음	밝은주황	주황	밝은갈색	갈색	핑크	붉은색	보이지 않음
%	13.3	20	20	23.3	20	3.3	10	10	23.3	0	36.7	16.7	3.3	16.7	23.3	36.7	0	3.3	20	0

입술은 핑크와 붉은색과 같은 핑크계열의 색상 보다는 밝은 갈색, 주황과 같은 오렌지 계열의 색상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이중턱을 가진 여성이 19개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마른체형을 가진 여성은 전체 중 4개로 대부분이 풍만한 체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로크시대는 이중턱을 가지고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살이 찐 풍만한 여성이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그림 22>에서처럼 애교점을 가진 여성도 2개가 보여 지는데 이는 바로크시대부터 로코코시대에는 더욱 활성화된다.

따라서 바로크 시대의 인물화를 통해본 메이크업과 미인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연령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은 여성의 인물화가 좀더 많은 수를 나타냈고, 신분에 있어서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얼굴형은 계란형과 둥근형과 같은 곡선형의 여성적이며 부드러운 얼굴이 많았고, 눈썹은 수수평형태의 두꺼운 눈썹이 많았다. 입술은 수평형태가 많은 나타나고 인커브 형태가 다수 보인다.

치크는 볼 전체에 넓게 퍼져있는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눈썹의 색상은 진한색상이 많이 나타나며, 치크는 핑크나 붉은색과 같은 핑크계열의 색상이 선호되고, 입술은 주황이나 밝은 갈색과 같은 오렌지계열이 선호된다. 전체적으로 이중턱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살이 찐 풍만한 여성이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대는 미인의 체형이 확실히 정해졌다. 미인이라면 위엄 있고 고귀하며 풍만한 체형이라야 했다. 장-루이 플랑드랭은 이 시대 체형의 변화를 상류층 사회의 식습관 변화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14세기까지는 프랑스 요리에 설탕이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설탕은 병자들을 위해서나 사용되었고 대부분 향신료나 식초가 대신했으며, 기름이나 버터의 사용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이러한 식습관에 변화가 일어났다. 지방질을 점점 더 많이 섭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넉넉한 계층에서는 비만이 퍼지지 시작했으며 자연적으로 비만이 특정한 사

회적 지위를 상징하게 되었다.¹⁶⁾ 이러한 변화는 바로크 시대가 되어서는 오랜 식습관으로 굳어지고 확실한 체형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려는 의식적인 노력 탓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시대가 엄중한 성적 구별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여성은 어떤 정도 남성과 유사해서는 안되었다. 때문에 과거의 어느 때 보다도 여성성을 강조하는 풍만한 가슴과 넓은 골반에 큰 가치가 부여되어 풍만한 여성이 미의 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풍만하고 성숙한 여성이 이상적인 미인상이 되면서 여성들은 둥글고 살이 찐 얼굴형과 이중턱을 선호하게 되었고, 살이 찐 얼굴과 체형에 어울리도록 두꺼운 눈썹을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눈썹의 형태가 좀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발전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치크는 볼 전체에 넓게 칠하므로서 얼굴의 윤곽을 조정하고 동시에 얼굴에 혈색을 주었으며 대부분 치크를 강조하고 중요시했음을 볼 수 있다.

입술과 치크, 눈썹은 모두 약간 진한 색을 선호하여 눈썹은 진하고 입술은 붉으며 치크는 붉고 넓게 칠한 얼굴의 각 부분이 모두 강조된 또렷한 형을 선호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르네상스시대와 바로크시대의 인물화를 통하여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 신분에 따른 비교해 보면 르네상스 시대에는 연령이 적은 여성을 그린 것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바로크 시대는 연령이 많은 여성을 그린 것이 조금 더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는 르네상스시대에는 중세의 영향으로 어린여성을 선호한 반면 바로크시대에는 성숙한 여성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형태에 따라서 비교해보면 얼굴형에 있어서는 르네상스 시대에 비하여 바로크 시대에는 계란형,

역삼각형의 얼굴은 다소 줄어든 반면, 각진 형, 긴 형이 좀 더 보인다. 이는 바로크시대가 르네상스시대보다 좀더 둥글 얼굴형, 넓은 얼굴형에 대하여 관대하며 살이 있는 얼굴형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눈썹형태에 있어서는 르네상스 시대에는 아치 형태의 눈썹이 다수 나타나지만 바로크시대에는 적게 나타난다. 또한 르네상스 시대에는 얇은 눈썹이 대부분인데 반하여 바로크 시대에는 진하고 두꺼운 눈썹이 주를 이루었다. 즉 르네상스 시대에는 얇은 아치형이나 수평의 눈썹이 유행이라면 바로크시대는 두껍고 진한 수평형태의 눈썹이 유행이었다. 두 시대 모두 현대에는 선호하지 않는 하향형태의 눈썹이 다수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하향형태의 눈썹이 미의 기준에 반하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치크는 르네상스시대에는 많은 수가 사선으로 표현되고 둥근 형태는 보이지 않으며 넓게 표현된 형태도 적게 나타난다. 그러나 바로크 시대에는 사선보다는 볼 전체에 넓게 표현된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둥글게 칠한 형태도 보인다. 따라서 르네상스 시대보다는 바로크 시대에 치크가 더 강조되며 얼굴 전체를 넓게 칠하는 것을 선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입술은 대체로 두 시대 모두 원래의 입술보다 약간 작게 표현하는 입술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르네상스시대가 바로크 시대보다 스트레이트 형태가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완전한 인커브형은 바로크시대가 르네상스시대보다 조금 더 많이 보인다. 르네상스시대에는 약간 각진 형태의 약간 작은 수평형의 입술이 선호된 것으로 보이며, 바로크시대는 조금 더 작은 입술이 선호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로코코시대로 이어져 꽃봉우리 같은 입술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색상에 따라서 비교해 보면 치크는 르네상스시대에는 밝은 주황, 주황 등 오렌지 계열이 많이 나타나며, 바로크 시대는 핑크, 붉은색과 같이 핑크계열이 많이 나타난다. 르네상스 시대의 치크가 좀더 연하고 채도가 낮은 색상들이 선호되었

으며, 바로크시대가 좀더 진하고 선명한 색상들이 선호되었다. 또한 바로크시대가 되면서 붉은색의 사용이 많아졌다.

입술색상은 두시대가 모두 핑크계열보다는 오렌지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르네상스 시대에는 밝은 주황, 주황의 색상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며, 바로크시대에는 밝은 갈색의 사용이 르네상스시대보다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입술 색 역시 차분한 색상을 사용하여 성숙한 느낌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입술은 붉은색의 사용도 다소 보이는데 반해 핑크의 사용이 거의 보이지 않아, 두시대의 입술색상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핑크색상이 선호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시대에는 주황, 붉은색 등 진한 입술이 선호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색상의 사용에서 몇 가지 색을 한정지어지는 것은 이 시대의 메이크업 재료 때문인 것이다. 이 시대는 색을 낼 수 있는 재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색들의 사용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메이크업의 형태나 인물화속의 여성들의 모습을 기준으로 두시대의 미인상을 유추하여 비교하자면, 르네상스 시대에는 계란형의 얼굴에 이마가 높고 넓으며 얇은 눈썹과 수평형의 주황계열의 입술에 사선형태의 주황계열의 치크를 한 밝은 색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마르지 않은 어려보이는 여성이 선호됨을 알 수 있다.

바로크시대에는 계란형이나 둥근형의 살이 많고 이중턱을 가진 얼굴로 진하고 두꺼운 눈썹에 르네상스시대보다 넓고 진하게 강조된 치크에 좀더 작고 진하게 강조된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바로크시대에는 풍만하고 성숙한 느낌의 여성이 선호되어 미의 이상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가면서 여성들은 더욱 풍만해지고 눈썹은 좀더 진하고 두꺼워 자연스러워 졌으며 입술과 치크는 좀더 붉게 강조되어 진다. 이는 중세시대의 가녀리고 어린 아가씨가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영향을 주고, 바로크시대가 되면서 완전히

없어지고 바로크시대만의 독특한 미의 기준을 가지다가 바로 뒤의 로코코시대에 영향을 주어 로코코시대의 화려한 메이크업을 발전시켰다.

이처럼 모든 시대의 메이크업과 치장, 이상적인 미의 기준은 전시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그 시대만의 독특한 형식을 창조한다. 또는 과거의 미의식을 되살려 그 위에 현재의 미의식을 덧입혀 발전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하여 각 시대는 유행을 만들고 지금까지의 변화를 보면서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세시대를 끝내고 비로소 인간중심에서 미의식을 발전시켜나간 어떤 면에서는 현대화장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르네상스시대에서 바로크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펴 봄 으로서 그 문화 속에서 새롭게 발전의 과정을 겪는 메이크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로 미루어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 회화작품에서 채색을 보지 못한다는 점과 좀 더 많은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지 못한 점, 분석도구로 사용한 기준인 메이크업의 표현 요소가 다소 현대적인 개념에서 이루어진 분류라는 한계점이 있다. 이 시대들은 지금과 같이 메이크업제품과 색상이 다양하지 않았던 관계로 색채의 사용이나 메이크업의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분석내용이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는 제한점도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이와 같은 한계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5) 정선정 외(2001),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p87
- 6) 캐롤 스트릭랜드 (2000), 김호경역, *“클릭 서양미술사”*, 예경, p80
- 7) 고종희 (2004), *“르네상스의 초상화 또는 인간의 빛과 그늘”*, 한길아트,, p7
- 8) 이명옥 (2004), *“미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들”*, 다빈치, p255
- 9) 존 스티어(2003), *“베네치아 미술”*, 시공사, p101
- 10) 도미니크 파케(1998), 지현 역, *“화장술의 역사”*, 시공사, p46
- 11) 김경하,2004, *“르네상스 시대 인물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특징”*,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5
- 12) Robyn Cosio(2000), *“The Eyebrow”*, Regan books, p11
- 13) Sharon Romm(2000), *“Beauty”*, 군자출판사, p209
- 14) 도미니크 파케(1998), *“화장술의 역사”*, 시공사, p52
- 15) 지양숙(2004), *“중세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p.28
- 16) 베아트리스 폰타넬(2004), 김보현역, *“치장의 역사”*, 김영사, pp.136-137

참고 문헌

- 1) Santayana George(1986), *“The Sense of Beauty”*, New York Dover Publication, 1986, p.49
- 2) 이명옥(2004), *“미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들”*, 다빈치, p255
- 3) A. 하우스저(2002),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창작과 비평사, p19
- 4) 이정옥 외(1999).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p153

그림 출처

- 1) 캐롤 스트릭랜드 (2000), *“클릭 서양미술사”*, 예경
- 2) 움베르트 에코 (2005), *“미의 역사”*, 열린책들
- 3) 스테파노 추피 (2005), *“천년의 그림여행”*, 예경
- 4) 데이비드 호크니 (2003), *“명화의 비밀”*, 한길아트
- 5) www.abcgallery.com

(2006년 4월 7일 접수, 2006년 7월 6일 채택)